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8월 1일(금)

(윤력 윤6월 8일)

Пятница

1 августа 2025 г.

№ 30 (1214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025년 7월 30일, 세웨로쿠릴스크. 해일 후.

(사할린 주정부 제공)

## 세웨로쿠릴스크, 지진 후 건물 및 인프라 시설 조사 실시

7월 30일 10시 30분, 세웨로쿠릴스크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태평양으로 도시에서 360km 떨어진 곳이었다. 규모는 8.4였다. 지진 후 쓰나미 파도가 밀려왔다. 세웨로쿠릴스크, 그리고 솜슈 섬 근처 최대 해일 높이는 약 3-4 m에 달했다. 세웨로쿠릴스크 지역에는 2400명이 거주 중이다. 모든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차와 음식이 제공되었다. 피해자 및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7월 30일 저녁,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며, 22시 이후 쓰나미 위협이 해제되었다.

현재 행정 직원들은 피해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주택 및 인프라 시설을 점검 중이다. 특히 난방 시설과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와 주지사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두 번째 교육 블록 시작

특수 군사 작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지역 사회 복귀 프로그램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참가자들이 7월 28일부터 2단계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 모듈에서는 국제 기후 포럼 참가, 지방 자치 단체 업무 현장 방문, 군사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참전용사들이 전역 후 평화로운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직업 경력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시작된 첫 번째 교육 블록에는 55명의 참전용사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정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학습했으며,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주재한 정부 확대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리마렌코 주지사는 각 참전용사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전투 경험을 공유하고, 전역 후 진로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참전용사들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은 우리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 부처, 교육 기관, 청소년 단체, 지역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노하우는 향후 특수 군사 작전에서 복귀하는 다른 동료들을 지원하는 데도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교육 블록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들은 각각 부지사, 장관, 시장 등 고위급 주정부 관계자를 멘토로 배정받았다. 두 번째 교육 블록에서는 보다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7월 28일에는 코르사코브 시청을 방문해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8월 1일부터 2일간 열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섬들: 기후 측면' 국제 포럼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영웅의 길'이라는 군사 스포츠 게임에도 참여해 팀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 사할린 주민 공간 현대화 작업 진행

사할린 주정부는 2021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시작된 다세대 주택 주변 공간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섬 내 15개 시군구에서 총 343개소의 공동 주거 공간이 개선되었으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221개소(홈스크 71개소, 유즈노사할린스크 54개소, 돌린스크 37개소)가 정비되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69개소(노글리키 25개소), 중부 지역에서는 53개소(스미르니흐 12개소)가 현대화되었다.

드미트리 아리스타르호브 사할린 주 주택공공경리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을 신속하게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어린이 놀이터, 어른들의 휴게 공간, 노인들의 교류 장소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단지 마당 80개소를 선정해 대대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10개소의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설계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 2025년 영주귀국 및 정착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에서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4일 대한적십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자로 234명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 현재 희망 지역 주택 수요조사 중이다.

올해 대상자 중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은 총 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를 통해 지원접수해

선정됐다. 이로써 기존 영주귀국자의 동반가족 총 216명이 올해 영주귀국 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4.1.16. 공포 / 7.17. 시행)의 개정으로 영주귀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실제 선정대상자 수는 작년보다 적다.

올해 영주귀국 신청서 접수결과가 두 달 앞당겨 통지된 가운데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배순신 기자)

## 기후 포럼에서 열기구 체험 행사 개최

8월 1일부터 2일간 사할린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섬들: 기후 측면' 국제 포럼의 부대 행사로 '공기' 축제가 푸시스티 드론포트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숨쉬고, 날고, 영감을 얻으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항공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열기구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최측은 낮 12시부터 열기구 탑승 기회를 제공하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야간 열기구 조명 쇼를 선보일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도 직접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외에도 항공 모형 시연(오후 2시-3시), 드론 레이스(1일 오후 3시-5시) 등 다양한 항공 스포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드론 레이스에서는 사할린 지역 대표 선수들의 시범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며, 관람객들도 드론 조종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 행사로는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아티스트 타운' 전시회와 유럽, 일본, 사할린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 축제가 열린다.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는 사할린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번 축제는 단순한 오락 행사를 넘어 푸시스티 드론포트를 과학기술과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며, "항공과 해상 운송을 연계한 종합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 청소년 단체, 산업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포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새고려신문

##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에서 온 편지: 조상들의 잊혀진 목소리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으로 지난 7월 22일 '도박이' 다큐멘터리 제작진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새고려신문 배 워터리아 대표는 본사가 '사할린에서 온 편지: 조상들의 잊혀진 목소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젝트는 새고려신문 편집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1977년 대한민국에서 장민구 기자가 출간한 『사할린에서 온 편지』의 일부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과 관련돼 있다.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단계에서는 책에 수록된 일부 편지들의 번역본을 신문에 게재할 계획으로, 번역은 문화번역으로 잘 알려진 인문학 선생님이 맡아 주셨으며, 사할린의 역사학자 율리아 진 님의 해설이 함께 실릴 예정이다. 해설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상세히 설명할 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오늘날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조명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텔레그램 채널 '사할린 한인들'에 이 소중한 자료들을 게재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젊은 세대도 조상들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역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2026년에는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확장판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다. 새로 발굴한 문서와 사진, 연구 결과를 추가한 이 책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본사 편집부

사할린의 전후 역사에는 눈물과 희망으로 점철된 페이지들이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섬에 남겨진 우리 조상들은 수십 년간 고국으로의 귀환을 간절히 소망했다. 편지 속에 담긴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이 특별한 문화·역사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 전후 시대의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남사할린의 동포들은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일본 당국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광산과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였다. 소련군이 섬을 해방하자 동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후 세계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한반도의 비극적 분단, 소련과 새로 수립된 한국 정부 간의 미묘한 외교 관계 등 모든 것이 귀환의 꿈을 멀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바다와 국경으로 갈라졌고, 사할린 동포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도 가족의 재회는 요

원하기만 했다. 편지는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마음을 전하는 가느다란 실이었다.

### 박노학 선생님: 정의를 위한 외침

이 비극적 역사 속에서 박노학 선생님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운동을 주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헌신한 사회운동가이다. 일본에서 활동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박노학 선생님의 활동은 정치적 주장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할린 동포들과 외부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소식 전달과 연락망 구축을 위해 헌신했다. 그분의 이름은 가족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 먼 섬에서 전해온 목소리

박노학 선생님에게 사할린에서 수많은 편지가 전달되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서신이 아니었다. 영혼의 절규였고, 한 세대의 간절한 호소였으며, 인간적 비극의 생생한 증거였다. 편지에는 섬 생활의 고된 현실과 더불어 가족과의 재회에 대한 꺼지지 않는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각 편지는 이별의 아픔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편지를 쓴 동포들은 부모의 고국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난 자식들,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 채 지지도

록 기다리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 장민구와 희망의 라디오 다리

사할린 동포들의 운명을 알리는 데 장민구 기자의 역할은 지대했다. 한국방송(KBS)에서 근무하며 1972년 독보적인 프로그램 『사할린 동포들에게』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잇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가 사할린 동포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장민구 기자의 방송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과 사할린의 상황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을 형성해 한국 정부가 귀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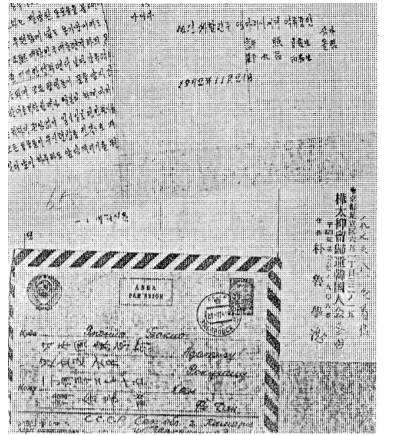
### 역사의 증거로서의 책

1977년, 장민구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사할린에서 온 편지』를 출간했다. 이 책은 중요한 역사적 문서로 자리매김했다. 사할린 동포들이 보낸 편지와 추억, 고국과 단절된 삶의 증언이 담긴 이 책은 한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후 귀환 과정이 시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책은 단순한 편지 모음집이 아니었다. 인간의 고통과 인내의 생생한 기록이었고, 시대의 증언이었으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분들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이다.

###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사할린에서 온 편지" 프로젝트



는 단순한 출판 기획을 넘어선다. 이는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 역사적 상처의 아픔과 기억 보존의 희망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다. 글로벌화와 빠른 사회적 변화의 시대에 우리의 뿌리와 연결되고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잊지 않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사할린 한인들의 편지는 역사적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 인내의 교훈이다. 이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가족, 고국, 인간적 유대감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사회운동가들과 기자들의 공동 노력 덕분에 이 목소리는 다시 울려 퍼지고, 새로운 청중과 독자를 찾으며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살아남을 것이다. "사할린에서 온 편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각자는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에 전함으로써 이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율리아 진, 역사학 박사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돈바스 전투 희생어린이들 추모

7월 27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청년 근위대 활동가들과 "우리 시대의 영웅들" 프로젝트 참가자인 특수군 사작전 베테랑 유리 몰로트조브가 돈바스 전투 중 사망한 아이들을 기렸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러시아 청년 근위대" 보도부에서 전했다.

돈바스 전투 희생 어린이의 날은 2022년 7월 27일부터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지도자 데니스 푸실린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에서 기념되고 있다. 이 날은 우크라이나 군대 침공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4년 7월 27일,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은 고를로브카시 거리에 발포하여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에서 2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망했으며, 이 중 60명 이상은 특수군 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희생되었다.

"돈바스의 아이들을 추모하는 날은 우리나라에 매우 슬픈 날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 비극은 고통입니다. 저는 청년 근위대 출신의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나치즘이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통합 러시아 청년 근위대 활동가 소피아 마주르가 말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조국 수호자 소공원에는 통합 러시아 청년 근위대 사할린 지역 지부 활동가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주도센터, 통합 러시아 청년 근위대 아니와 지역 지부 활동가들이 모여 어린이들을 기리며 50개의 전구를 "4세기 전사" 조각상 기슭에 놓았다. 또한 희생자들의 명단이 발표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펼쳐 들고 1분간의 침묵으로 추모했다.

### Акцию в память о детях - жертва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Донбассе пров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воскресенье, 27 ию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к-

тивисты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МГЕР) и участник проекта «Герои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ветеран СВО Юрий Молодцов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детей,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Донбассе.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День памяти детей - жертв войны в Донбассе отмечают в России 27 июля с 2022 года по указу главы ДНР Дениса Пушилина. Скорбная дата увековечивает память о детях, которые погибли из-за агрессии вооруж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Украины. Именно 27 июля 2014 года солдаты ВСУ обстреляли улицы Горловки и убили 22 мирных жителя, включая четверых детей. За все годы агрессии ВСУ в ДНР погибли больше 200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больше 60 из них --- с начала СВО.

«День памяти погибших детей Донбасса - скорбная дата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ведь на этих землях живут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Для нас эта трагедия - такая же боль. Я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этой акции, как и многие мои ровесники из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Мы знаем, что нацизм не щадит ни взрослых, ни детей. Всегда будем помнить погибших и не дадим забыть о них», - отметила активист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Единой России» София Мазур.

В этот день в сквере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ись актив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ОО МГЕР,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и Анивского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МГЕР,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детей и зажгли 50 лампадок, выставив их у подножия скульптуры «Воины четырех эпох». Кроме того, на фоне декламации списка имен погибших участники развернули фотографии жертв и почтили их память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학생 분대 축제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학생 분대 축제가 열렸다. 러시아 40개 지역에서 온 100명 이상의 젊고 활기찬 대학생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며 새로운 지인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사할린 지역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기념일이 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이것은 휴식을 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째로 러시아 대학생 분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젊고 활동적이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라고 러시아 대학생들의 사할린지역 책임자 니키타 푸슈코가 말했다.

올해 이 행사는 경쟁적인 성격도 띠었다. 참가자들은 창의적인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고, 대학생단의 활동 방향에 따라 역할을 통과하며, 대학생 분대 축제 컵을 위해 경쟁했다. 대회 외에도 참가자들의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이 마련되어 향후 발전과 경력 성장에 기여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대화형 프로그램을 기대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팀 구성 게임, 창의적인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경험 많은 멘토와 다양한 직업의 대표자들과의 만남이 포함되었다.

대학생 분대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할린 국립 대학은 참여와 추가 고용 기회에 대해 상담하고 알리는 행사장을 운영했다.

대학생 분대 축제는 축제 컵 수여와 모닥불 주변에서 기타 연주와 함께하는 대규모 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젊은 참가자들 사이의 단결과 우정을 강화하는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завести новые знакомства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100 молодых и энергичных студентов из 40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Это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ля студентов, работ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ребят это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отдохнуть, пообщаться. Мы второй раз уже проводим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и он уже стал своеобразной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молодой и активной, а главное работающей молодежи»,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Никита Пушко.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обрело и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ребята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ворче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прошли станции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и боролись за Кубок Фестива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омимо состязаний, был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лекции и презентаци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навыков участников,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их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 карьерному росту.

(8면에 계속)

# '대조국전쟁 참전용사인 사할린 기자들' 사진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막

7월 31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기자들의 오솔길'에서 위대한 조국 전쟁 때 조국을 위해 싸운 19명의 기자들을 기리는 사진전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을 비롯해 러시아 기자동맹 사할린지부 회원들, 참전용사 가족들이 참석했다.

전시장에는 대조국전쟁 전선에 나가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해방에 참전한 기자들의 희귀한 기록 사진과 생애가 소개됐다. 이들은 전후 지역 언론에서 활동하며 현대 사할린 미디어의 기반을 다진 인물들이다.

나드사진 시장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 역사를 배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억을 보존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의 오솔길'은 이미 수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공간이자 역사에 대한 존중의 상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오늘 이곳에 걸린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말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진실을 위해 싸웠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사할린의 삶과 사람들, 승리와 어려움을 기록하며 진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창조한 것입니다."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기자연맹과 회원들, 블라디미르 세멘치코 회장의 노고가 컸다. 자료를 꼼꼼히 모으고, 이름을 복

원하며 기억을 보존한 기자들의 노력은 과거에 대한 존경을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중요한 다리다. 전시회는 미래대로에 위치한 소공원(그린 팔라스와 쇼핑몰 '클로버 홀' 사이)에서 열리며,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취재: 이에식 기자}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 광복 80주년 맞아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를 소개한다

####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강석압

관리번호	95384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강석압	한자	姜錫爰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72)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경남도 이원		

### 공훈록

강석압은 1921년 1월 18일(음) 혈성단(血誠團) 영단장(營團長)으로 러시아 파르티잔스크(蘇城) 부근에서 한창걸(韓昌傑) 등과 함께 구태(舊態)를 버리고, 신지식을 배워야한다는 취지에서 노인들의 상투를 잘라주고, 파르티잔스크 동쪽에 있는 약 100호의 한인 마을 소시니고우에서 군자금과 단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2년 혈성단 지단 제1명의 영단장(營團長)으로 수이푼(秋豊)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4. 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1)  
· 한국독립운동사사전 제7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49면  
· 間島 및 同 接壤地方에 있어서 排日團體 및 親日團體 調査의 건(1922. 2. 2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2)  
묘소 : 불명

### 강양오

관리번호	7048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강양오	한자	姜良五
이명	姜揚吾 姜良五	성별	남
생년월일	(1875-07-03)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경남도 이원서 송노대		

### 공훈록

1911년부터 1923년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권업회, 한인회, 한인신보, 구국모험단,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지부, 시베리아조선인교육회, 적기단 등에서 활동하였다. 1911년 권업회(勸業會) 회원, 1912년 순지동제당(脣齒同濟黨) 당원, 1913년 6월 권업회 재무겸 의원, 1914년 1월 권업회 재무로 활동하고, 같은 해 8월 29일 이동휘(李東輝)·김립(金立) 등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국에 대한 협의를 하

였다. 1917년 9월 신한촌(新韓村) 민회(民會) 평의원(評議員), 12월에는 한민회(韓民會) 노동부원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10월 전로한족대회(全露韓族大會)에서 극동국민대표회에 파견할 예비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19년 1월 신한촌 민회 의사원(議事員)으로 파리평화회의에 대한 한국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하였고, 5월 청년동지회를 개최하고 총기 구입을 결의하였다. 7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협회 기관지인 「한인신보(韓人新報)」 재무와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재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11월 20일경 신한촌 자신의 집에서 상해(上海) 구국모험단(救國冒險團)의 지부를 설치하여 지부장(支部長)이 되었고, 12월에는 한민민회(韓人民會) 회장에 선출되어 1920년 2월 친일인사 2명을 처단하였다.

1920년 1월 니콜리스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지부 사무 집행과 무기 구입 중개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4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한인촌을 습격하여 수백 명을 학살하는 4월 참변을 일으키자, 파르티잔스크로 피신하였다. 파르티잔스크에서 러시아 적군과 교류하며 이를 방해하는 마적을 막기 위해 자위단(自衛團)인 사포를 조직하였다. 6월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1920년경 김영학·조장원(趙璋元)·조영진(趙永晉) 등과 공야단(共亞團)을 결성하였다. 1921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거류민회 신한촌 의사원, 11월 전로재주조선인교육회발기회(全露在往朝鮮人教育會發起會)를 조직하고 이듬해 1월 시베리아조선인교육회로 개칭한 후 재무부장에 선임되었다. 1923년 8월 영고탑(寧古塔) 지방 적기단(赤旗團) 선전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獨立運動에 관한 건(1919. 1. 27), 平和會義와 韓國獨立運動에 관한 건(1919. 2. 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7)  
· 朝鮮人概況 第二 壹部 參考 送付(1919. 3.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歐米(七雜)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19. 7. 8), 第2鮮人國民大隊에 관한 건(1919. 7. 23),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19. 8. 2),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19.

8. 4),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19. 10. 5),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19. 11. 12), 排日鮮人の 행동에 관한 情報 進達의 건(1919. 11. 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8)  
· 鮮内外 一般 情況(1919. 12. 3), 上海假政府軍政部 支部 設置(1920. 1. 30)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5)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1. 8),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1. 14),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1. 22),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2. 29),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3. 20),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4. 3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9)  
· 上海假政府軍政部 支部設置(1920. 1. 3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1)  
· 國外情報(1920. 6. 2),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6. 5),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6. 24),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8.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0)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8. 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20)  
· 鮮人の 關한 건(1920. 9. 22),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0. 10. 14), 鮮人에 관한 건(1920. 12. 22),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1월),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1. 26),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2. 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1)  
· 鮮人에 관한 건(1920. 12. 22),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1)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6. 8), 露國 沿海州 新政府 國會에 관한 건(1921. 6. 25),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8. 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2)  
· 在露 共產黨 活動에 관한 報告(1921. 7월 初旬)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과 過激派(1)  
· 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1. 11. 23), 浦潮 在往 鮮人 民心에 관한 건(1921. 12. 2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3)  
· 間島 및 接壤地 地方에 있어서 不逞鮮人の 행동에 관한 건(1923. 9. 25), 1923년 9월 中 間島 및 接壤地 地方 治安狀況에 관한 건(1923. 10.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4)  
· 露領에서 潛入한 勞動黨員 李挺洙 取調 狀況에 관한 건(1925. 7. 4)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2)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2권 96면, 제3권 488, 494면  
· 現代史資料(姜德相, 1970) 제27권 26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6집 1114면  
· 근대중간관계사자료회보(국사관, 1987) 제2권 700면, 제5권 416면  
· 北間島지역 獨立軍團名簿(國家報勳處, 1997) 217면  
· 해외요주의선인연명부(일본외무성) 54, 292, 523면  
· 스탈린시대(1934~38년) 정치탄압 한인(고려인) 희생자들(구 스페틀라나·이형근 편저, 2004) 제3권 46면  
· 勸業新聞(1912. 6. 2, 8. 25, 9. 22, 11. 10, 1913. 7. 20, 11. 30, 12. 7, 1914. 2. 8, 6. 28, 7. 12)  
· 韓人新報(1918. 1. 6)  
· 新韓民報(1918. 10. 24, 1922. 3. 16)  
· 每日申報(1921. 12. 18, 1922. 2. 25)  
· 東亞日報(1921. 12. 31, 1922. 2. 8, 1923. 2. 8)  
· 先鋒(1923. 5. 12)  
· 排日鮮人 領袖株 浦潮에 集合(1913. 11. 18), 最近에 있어서 浦潮 朝鮮人 排日의 情況(1913. 12. 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歐米(2)  
· 1월 21일 이후 浦潮地方 鮮人 狀況(1914. 2. 5), 2월 1일 이후 勸業會 및 浦潮 狀況(1914. 2. 13), 排日鮮人の 연동과 豆滿江沿岸의 鮮人移住件(1914. 3. 13), 勸業會·民會의 併合과 黃丙吉의 書信(1914. 4. 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4)  
· 李鍾浩 등 不逞鮮人の 同情 및 日韓併合紀念 勸業新聞 記念號 등에 관한 건(1914. 9. 7), 不逞鮮人 名簿에 관한 건(1916. 2. 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5)  
· 朝鮮人 近狀에 관한 報告의 件(1917. 10. 8), 露國革命이 朝鮮人에게 미치는 影響(別冊)(1917. 10. 16), 李東輝의 近情 및 梁起鐸의 行動에 관한 건(1917. 12. 28), 新韓村 排日鮮人の 警備團 組織에 관한 건(1918. 4. 20), 圖們江方面 露領情況 彙報-浦潮 排日鮮人の 狀況에 관한 건(1918. 8. 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6)  
묘소 : 미확인

{편집 이철수}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История страны — моя история» проходит на Сахалине

С 27 июля по 2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местно с РМО-ОСК проводит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История страны — моя история».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20 учащихся от 14 до 17 лет, в том числе школьники из Углегорска, Смирных,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грамм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традиционно насыщенная. Она включает посещение обелисков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в Пожарском (Мидзухо), горы Печали в Корсаков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и изготовлению изделий из бумаги ханджи. Участники знакомятся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тречают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ак сообщил директор лагеря Владимир О, ребята весело и активно проводят время на туристической базе,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побережье озера Тунайча, выезжают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изучают историю на местах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 В Грузии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участнико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С 18 по 20 июля 2025 года в г. Тбилиси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участнико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оединяя звезды» - Путешеств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 объединению»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Европы,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объединению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сетев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Также за акти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были отмечены региональные отделени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нглии, Германии,

Франции и России (в лице Сим Татьяны Реевны из Омск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ах мира.

<https://ft.me/saramkor>

##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оссии Сергей Тен подарит рюкзаки 600 первоклассника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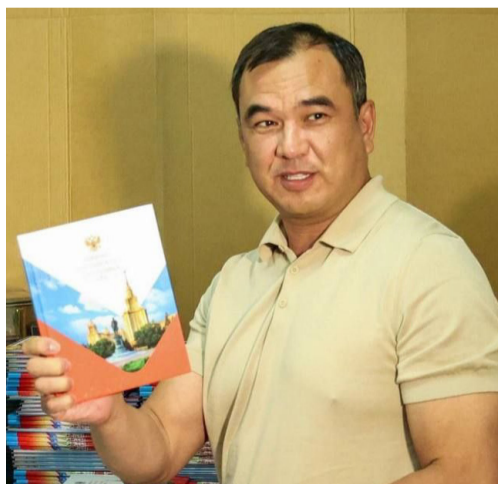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РФ по вопросам собственности, земельным и имущественным отношениям,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жфракционной группы «Байкал» Госдумы России Сергей Юрьевич Тен подготовил 600 рюкзаков для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сообщает IrkutskMedia.ru.

К 15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все рюкзаки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ы. В них будет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учёбы: 17 различных предметов — от карандашей и фломастеров до дневников и линеек.

Списки детей,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рюкзаки, составляются совместно со службам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рюкзаки от фонда Юрия Тена будут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10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у над проектом выполняет команда депутата -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Юрия Тена. Фонд, созданный в 1996 году, носит имя основателя ЗАО «Труд», депут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трех созывов Юрия Михайловича Тена (1951-2003).

«Моя самая большая мечта — чтобы в России не было бедных. Я хорошо помню прошлую жизнь, свое детство, и знаете, большего унижения, чем бедность, нет. Соглашусь тут с Петром Аркадьевичем Столыпиным, который сказал: «А



бедность, по мне, худшее из рабст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московским нищим не подаю. Но,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о покупать для школ компьютеры, посылать в детские дома учебники и тетради, в больницы — дорогостоящую аппаратуру. Помогать ветеранам, пенсионерам, инвалидам. Не все рождены здоровыми, энергичными и талантливыми, не все могут пробыть на свете — надо помнить об этом и делиться», - говорил основатель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Тен.

<https://ft.me/saramkor>

##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От редакции:** Сообщаем о запуске нового проекта редакции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Это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Связан этот проект с частичным переводом книги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вышедше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1977 году под редакцией Чан Мин Гу.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в газете будут публиковаться переводы писем из книги.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выполнен Ин Му Хак,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исьма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коммента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ка Юлии Дин. Они помогут современным читателям лучше понять 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нтекст и значение этих документов. Комментарии призваны не только объясн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реалии того времени, но и показать, как события прошлого связаны с современностью.

Второй этап проекта предполагает размещение этих материалов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что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аудиторию и привлечь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к изучению истории своих предко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иалога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и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Завершающим этапом проекта станет издание в 2026 году отдельной книги,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ит все собранные материалы. Это будет не простое переиздание, а расширенное собрание, дополненное нов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фотографиями 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что сделает его ценным источником для историков и вс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В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есть страницы, написанные слезами и надеждой. Это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оказавшихся на острове волею историчес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 долгие десятилетия мечтавших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Их голоса, запечатленные в письмах, сегодня вновь обретают звучание благодаря уникальному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му проекту.

### Несбывшиеся надежды после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оказалось в крайне сложном положении. Многие из них бы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ывезены сюда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для работы в шахтах и на друг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ах. С освобождением острова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у корейцев появилась надежда на репатриацию —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днако этим надеждам не суждено было сбыться быстро.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послевоенном мире, разделение Кореи, слож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ССР и новообразова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 все это превратило мечту о возвращении домой в многолетнее ожидание. Семьи оказались разлученными морями и границами, а тоска по родным становилась постоянным спут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ды шли, 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емей оставалось недостижимым. Письма становились единственной связью между разлученны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 хрупкой нитью, соединявшей сердца через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 Пак Но Хак: борец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этой драматичной истории особую



роль сыграл Пак Но Хак —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который посвятил свою жизнь борьбе за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ходясь в Японии, он развернул активное движение за репатриацию, привлекая вним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еятельность Пак Но Хака не ограничивалась лишь политически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Он стал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 внешним миром, помогая установлению контактов и передаче информации. Его имя стало символом надежды для тысяч людей, мечтавших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с семьями.

### Голоса с далекого острова

Именно Пак Но Хаку адресова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Эти послания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не просто корреспонденцию — они были криком души, исповедью цел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кументальны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человеческой драмы. В письмах звучали рассказы о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е, о тяготах быта, но главное — о неугасающей надежде на встречу с родными.

Каждое письмо было пропитано болью разлук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ерой в лучшее будущее. Авторы писем 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переживаниями,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детях, которые выросли, не зная родины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о стариках, угасающих в ожидании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 Чан Мин Гу и радиомост надежды

Важную роль в освещении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ыграл журналист Чан Мин Гу. Работая на радио Корейской радиовещ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KBS), в 1972 г. он создал уникальную передачу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사할린동포들에게). Эта программа стала настоящим радиомостом, соединявшим разлученные семьи и привлекая внимание всей Южной Кореи к проблем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эту радиопередачу слушали наши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Для них это был голос Родины.

Передачи Чан Мин Гу имели огром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Они не только информировали слушателей о ситу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и в Корее, но 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формирова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дталкивая власти РК к активным действиям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 Книга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В 1977 году Чан Мингу изд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книгу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ставшей важ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документом. В ней были собраны посл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х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жизни в изоляции от родины. Книга произвела силь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стала одним из факторов, способствовавших началу процесса репатриации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Это издание представляло собой не просто сборник писем — это была летопись человеческого страдания и стойкости, документ эпохи, который сохранил для потомков голоса людей, оказавшихся заложниками исторической обстоятельств.

Юлия Дин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ведёт церемонию «Назначение народом»

Ли Чжэ Мён, приступивший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К сразу после выборов без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и официальной инаугурации, проведёт церемонию «Назначение народом». Она состоится 15 августа, в день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я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Сеуле. После выборов Ли Чжэ Мён лишь принёс присяг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и пообещал позже провест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 участием граждан. Как пояснил старший секретар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У Сан Хо,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черкнёт, что «народ является истинным носителем власти, а президент - это тот, кто следует воле народа и ведёт РК к статусу ведущей державы». На церемонию пригласят окол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детей освобождения», родившихся в 1945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2 компаний, впервые вышедших на фондовый рынок, а также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наблюдать за мероприятием вне зоны охраны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 Сеул намерен передать Пхеньяну тело северокорейца

21 июня на побережье острова Сонмодо в уезде Канхва-гун города Инчхона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тело мужчины,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гражданина КНДР. О его гражданств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обнаруженное при погибш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кументом, он родился в 1988 году, был крестьянином и проживал в деревне Канбук-ри уезда Кым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Пукто.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передать тел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днако в ситуации отсутствия каналов связи име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через СМИ. Сеул предлагает Пхеньяну передать тело и личные вещи 5 августа в 15:00 через пограничный пункт Пханмунчжом. Если ответа не последует, тело будет признано невоинственным и кремирован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оно оказало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остаётся неясным. Ране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29 подобных случаев, и большинство тел было передано Северу через Пханмунчжом.

## РК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по итогам летней Универсиады

Сборная РК заняла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по числу медалей на летней Универсиаде,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с 16 по 27 июля в Германии.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21 золотая, 9 серебряных и 27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Они добились особенно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тхэквондо, завоевав 14 медалей и подтвердив тем самым статус родины этого боев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фехтовании женская сборная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выиграла золото в командной шпаг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Женская команда по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установила новый рекорд Универсиады в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компанду, а в лёгкой атлетике у РК первая победа в эстафет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Япония - 34 золотые, 21 серебряная и 24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итай, на третьем США. Следующие летн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игры пройдут в 2027 году в РК.

## Национальный фонд роста превысит 150 трлн вон

По данным финансового комитета РК, 28 ию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планах созд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фонд роста объёмом более 150 трлн вон (108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инвестиций в ключев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отрасли —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оборонную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оздание фонда обусловлено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масштабной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в условиях жёсткой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Президент Ли Чжэ Мён в ходе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говорил о намерении создать фонд объёмом 100 трлн вон для развит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И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на базе Корейск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 будет создан основной фонд в 50 трлн вон, к котор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ивлечь до 100 трлн вон частного капитала.

## Фильм «Нормальная семья» привлёк 200 тыс. зрителей во Франции

Триллер «Нормальная семь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 Чжин Хо собрал во французском прокате более 200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дистрибьюторская компания Hive Media.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четырёх людях с разными убеждениями, чья жизнь начинает рушиться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записи с места преступления, совершённого их детьми. С этим результатом картина стала самым кассо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фильмом во Франции с 2023 года. Le Figaro, одна из крупнейших французских газет, назвала фильм «редким, тонко сделанным и пугающим корейским триллером». Ранее фильм был приглашён на 48-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Торонто, 18-й Лондо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и 26-й Тайбэй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RKI

##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налажи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риторику Пхеньян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первые официально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примири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 и реакция оказалась предельно холодной.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выступила Ким Ё Чжон,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ая в резких выражениях отвергла саму возможность диалога с Сеулом.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а дали понять, что не намерены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курса на снижение напряжённост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контактов. Однако эксперты признают: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продвижение по пути примирения потребует от Сеула не только большого терпения, но и почти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 Приговор от Ким Ё Чжон

Заявление младшей сестры вождя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прозвучавшее 28 июля, стало первой официальной реакцией Пхеньяна на серию примирительных шагов, предпринят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в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В нём чётко и недвусмысленно заявляетс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Север "не видит никакого смысла общаться".

"Мы не намерены проводить какие-либо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Южной Кореи и не считаем нужным обсуждать с ними какие-либо вопросы. Это - официальная и оконча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говорится в её заявле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Центральным телеграфным агентством Кореи (ЦТАК).

В дальнейшем тоне Ким Ё Чжон не осталось и следа от прежней риторики о "национальном единстве" или "северо-южн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Она открыто обвин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в лицемери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за словами о "разрядке" скрывается всё та же слепая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союзу с США и враждеб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КНДР.

"Идея о поглощении Севера - по-прежнему основа их политики.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лось: как верили в американскую защиту, так и продолжают верить. Прекращение транзитов с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или запрет на запуск листовок - это всего лишь косметические жесты, за которыми ничего не стоит", - заявила она.

Особую иронию вызвали у Пхеньяна слухи о возможном пригла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на саммит АПЕС,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осенью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Кёнчжу. "Это не более чем фантазии, граничащие с абсурдом", - отрезала Ким Ё Чжон.

### Но Сеул не обескураже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заявление без эмоций, но с подчёркнутым осознанием сложности ситуации.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первым официальным заявлением Пхеньяна по меж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Оно яс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асколько глубока пропасть недовери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Са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сегодня встречи с министром объединения Чон Дон Ёном подтвердил: несмотря на холодную риторику Севера, Сеул остаётся приверженным курсу на мирное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диалога.

"Наш приоритет - преодоление взаимного недоверия и построение мира без конфликт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Министр Чон Дон Ё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яви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собирается отступать от своих инициатив, даже если Север реагирует на них агрессивно. "Мы буде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терпеливо продвигать политику примирения,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открытости к диалогу. Это наш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выбор", -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ри этом он добавил, что если внимательно всмотреться в риторику последнего заявления Ким Ё Чжон,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чт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её предыдущими высказываниями оно звучит менее агрессивно - что, как считает Чон, оставляет определё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манёвров в будущем.

### Почему Север не верит Югу?

Несмотря на демонстрируемую готовность к диалогу,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системным недоверием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Причины этого многослойны.

Во-первых, это разочарование в "эре надежды". Пхеньян прекрасно помнит период 2018-2019 годов, когд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Мун Чжэ Ине стороны провели три саммита, обменялись обещаниями, фотографиями и даже короткими визитами по демаркационным линиям. Мун съездил с визитом в КНДР, где ему устроили самый тёплый прием. Однако затем США чётко дали понять: пока Север не сделает шагов к ядерному

разоружению, ника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возможно.

Все идеи - от совмест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Кэсо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о запуска меж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магистрали - были заморожены, и даже Мун Чжэ Ин не смог их возобновить,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красивые слова о межкорейском братстве. В Пхеньяне сделали вывод: Южная Корея не являе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игроком. О формулировках можно спорить, но по сути Пхеньян прав: без явного одобр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Вашингтона Сеул не может ничего делать помимо символических жестов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Вторая причина нежелания КНДР идти навстречу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усиление связей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В условиях изоляции со стороны Запада Пхеньян находит новые точки опоры. Военн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развивается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С Китаем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е торговые каналы.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Южной Кореей, чья политика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при любой смен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хеньян считает неоправданным риско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у России и Китая позиция ясны и предсказуемы.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ереживает небывалый бум.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33 года возобновилось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хеньяном. Дан старт проектам и в других сферах. При этом РФ не должна ни на кого оглядываться, развивая свои связ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третьих, новый идеологический нарратив. За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в КНДР произошёл качественный сдвиг в официальной риторике: Южная Корея теперь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разделённой нации", а лишь как враждеб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нцип "одной нации" де-факто исключён и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идеологии. "Исторические часы, повернувшие ход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не остановите и не повернуть назад", - констатировала Ким Ё Чжон.

Еще одна причина -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войная игра". Юг, по мнению Пхеньяна, ведёт себя противоречиво: продолжа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крупных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ях с США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оящих UFS), сохраня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альянс, но параллельно делает вид, что стремится к сближению. В КНДР такую позицию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неискреннюю и недопустимую.

### Сеулу придется запастись терпением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перспектив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выглядят крайне ограниченными. Сторон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свои позиции: Север открыто отрицает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любых контактов с Югом, называя их "бессмысленными" и "двуличными", в то время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формально сохраняет курс на диалог, но не получает ни подтверждений, ни сигналов в ответ.

С учётом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сдвигов в КНДР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ужается до минимума. Отказ от прежней риторики о единстве, закреплённый в заявлениях Ким Ё Чжон и официальной линии Пхеньяна, лишает диалог привычной основы - иде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 этнического братства. Взамен утверждается новая модель отношений: Север -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Юг - противник, опирающийся на внешнюю силу.

При этом остаётся фактор внешнего давления. Потенциальный сдвиг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нфигурации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менение политики США или Китая - может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при которых одна из сторон будет вынуждена пересмотреть текущий курс. Однак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та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не наблюдается. Риторика, действия и приоритеты участников остаются неизменны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краткоср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близки к нулю. Формальные заявления об "открытости к диалогу"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не находят адресата, а Пхеньян, судя по всему, не види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держивать даже символ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Развитие ситуации возможно лишь при существенном изменении внешней среды - будь то военное напряж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или измен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ключевых факторов за пределами полуостров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руковод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они намерены продолжать свои попытки "достучаться" до КНДР. Полностью благоприятный для Сеула вариант исключить нельзя, но сейчас он выглядит маловероятным.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дется запастись терпением, скорее всего с расчетом на очень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Полетать на воздушном шаре смогут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на клима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1-2 августа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Возду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шоу аэростатов, гонку дронов, выставки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приключения. Слоган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 «Дыши. Лети. Вдохновляйся».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к большому событию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Фестиваль развернется на новой площадке СахалинЭкспо, которая созда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онпорта Пушистый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конгрессом.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Воздуха» станет шоу аэростатов.

- Гости дронпорта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на эту красоту как в дневное, так и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Но главное –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их слотов сможет подняться на воздушном шаре. Первый подъем аэростатов намечен на 12 часов, а шоу ночного свечени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1 до 22 часов,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С 14 до 15 часов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лощадка авиамоделирования. Спортсмены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модели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фигуры высшего пилотажа.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тоже собрать модели и запустить их в воздух.

1 августа, с 15 до 17 часов, состоится зрелищная гонка дронов –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Гости дронпорта тоже смогут побыть в роли пилотов и попробуют управлять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Все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Фестиваль вкусов». Лучшие повара будут знакомить с европ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кухней, а также готовить аутентичные островные блюда.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богат не только кулинарными изысками, но и духовной пищей. На площадке развернется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Приятным бонусом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понравившиеся картины и увезти с собой напоминание о форуме и острове.

Яркой точкой каждого форумного дня станет вечерняя программа. С 17 до 22 часов на дронпорте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лучшие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сахалин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и коллективов.

- Фестиваль «Воздух» - это не только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о и способ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нашей новой площадке СахалинЭкспо и широко продвигнуть на рынок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Фактически на базе дронпорта Пушистый мы создаем мини-город,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стижения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техни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коммерческие услуги в сфере логистики. Рядом находится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где нача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Мы формируем мощн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узел,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авиацию и мо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что климатический форум на Сахалине – это выездная площадка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что подчеркивает его особый статус.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иалог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дущие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ученые.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форум доступна на сайте.

После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а СахалинЭкспо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конгрессом проведут еще две крупных выездных площадки ВЭФ.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остоится 6-8 сентябр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 25-26 сентября.

## Молодые новаторы СахГУ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и на форуме

###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2 августа в 10:30 в павильоне №3 стартует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трек «СахалинТех — за науку!», посвященный экологическим проектам молодых ученых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абитуриенты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и торжественным открытием трека выступит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на расскажет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о роли молодеж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устойчивого будущего и о том,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помогает молод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ои амбициозные проекты.

В формате динамич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напоминающих TED Talks, студенты и молод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ахГУ поделятся свои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направленными на улуч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Сахалине. Гости узнают, как определить качество воздуха по состоянию подорожника, какие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на местных болотах, какую роль играют водоросли в поглощени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как ученые СахГУ превращают их в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и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а «Научные клубы Первых», в ходе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 будут вручены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е знаки,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е их участ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е.

«Научные клубы Первых –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ддерживающее в детях и молодежи стремление к науч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и исследованиям. Мы верим, что каждый ребенок – это будущий первооткрыватель, а молодой ученый – будущий наставник и наша задача – дать им поддержку, вдохновение и настав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превратить идеи в прорывные проекты. В 2025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для проекта «Научные клубы Первых», и это больш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месте с Курчатов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мы создаем сообщество наставников в науке,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ю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найти свой путь и смело идти к новым открытиям. Наука начинается с Первых – и мы 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эти первые шаги были уверенными!» – комментирует Татьяна Сергеевна Манак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ек «СахалинТех — за науку!» — это площадка, где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новятся понятными и вдохновляющими для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Это событие объединяет науку,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чтобы вместе искать решения для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будущего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м, на площадке дронпорта «Пушистый» в павильонах «СахалинЭкспо» и на открытых площадках состоится серия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ткрытых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Здесь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демонстрация техники, работающей на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ии.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я можно будет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блюда. Также состоятс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3D-принтеров, занятия по сборке электросхе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форума откроется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ботами местных мастеров, а также приобрести понравившиеся произведения.

1 августа с 15 до 17 часов пройдет увлекательная гонка дронов, также состоятся показательные полеты беспилотников.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представят и авиамоделисты.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Воздух» состоится 1 августа в 18:00 и плавно перейдет в вечернюю сцен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с 19 до 21 часов.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вечера станет шоу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под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а с 21 до 22 часов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завораживающим ночным свечением аэростатов.

Добраться до места событи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жно будет, в частности,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Также из Корсакова до дронпорта каждые 20-30 минут будут ходить автобусы. На площадк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орудовано до 1500 парковочных мест.

## Участники труд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роекта «Галиотис»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в 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уденты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с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практики. Трудовой медицинский проект «Галиотис» реализуется в области третий год,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каждый раз возрастает. В состав прибывшей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студенты из 18 регионов, из них 13 ординаторов, 43 средних и 18 младших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Пятикурсник Астрах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убекиров Артур уже неделю трудится в Центре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медицины катастроф. Его ожидания полностью совпали с реальностью – кажд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он совершает вызовы, общается с пациентами, набира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ого опыта.

- Никогда не занимался та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этому мне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попасть именно на скорую помощь. Все наши вызовы не похожи на предыдущие – приходится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ть головой. Пациенты, как правило, с первичными диагнозами и иногда без помощи старших коллег не обойтись. Но это прекрасный новый опыт, который я и хотел получить, - рассказал Артур.

Всего в Центре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медицины катастроф трудовую практику проходят трое студентов - из Астраханской, Воронежской и Орл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Каждый из них работает в составе бригады,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наставника.

- Ребята – большие молодцы, 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дошли к своей практике. Они отработывают навыки внутримышечных, внутривенных инъекций, снимают и расшифровывают ЭКГ.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создаем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их развития, чтобы он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данной специальностью и при желании смогли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здесь уже по завершении обучения,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врач Центра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медицины катастроф Константин

Горфункель.

Среди сотрудников Центра скорой помощи есть выпускник из Ставрополя - Даниил Косолапов. Два года назад он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риехал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карьерный форум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Труд крут»,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он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остров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а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диплома вернулся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 В июле 2024 года я был трудоустроен в Центр скорой помощи и за это время успел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оперативно-диспетчерской службе, в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отделе, на лини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работы и жизни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 прекрасная природа с жарким летом и суровой зимой, хороший коллектив, - поделился Даниил.

Участник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трудового проекта «Галиотис»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25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Студенты трудоустроены в учрежде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Корсакова, а также в меж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1. Для те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решат строить сво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арьер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едлагае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дъемные, обеспечение жильем, оплату аренды жилья. Также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оказывается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детским садом, школо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супругов.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начало возрождаться в 2022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реализу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Что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вижению РСО, бесплатно обучиться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профессией и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на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за рубежом, достаточно заполнить простую форму на сайте или позвонить в кол-центр РСО по номеру 8 800 770 0 117.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дет приемка школ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кампании по приемк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и родитель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роводит проверку готовности школ города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Традиционно в перечень проводим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одготовке школ включены косметический и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общих и учебных помещений, спортивных залов, пищеблоков, медицинских кабинетов, а также укомплектование школ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мебелью и инвентар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опросам комплекс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ключающим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защищенность, проверку систем оповещения и пожаротушения, ревизию систем электро- и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холодного и горяче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а также санитарное состояние пищеблоков, кабинетов и территории, соблюдение норм охраны труда, доступности среды для детей с особы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 Помимо визуального осмотра помещений, комиссия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ет всю документацию, акты по текуще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и т.д. Если в ходе инспекции выявляются недостатки, то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язаны их устранить до начала учебного года. Для этого составляется план и назначается другая дата приемк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Леонид Тамонов.

Так,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сетила коррекционную школу «Надежда» в Луговом.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льга Михаленкова, коллектив готовится к приёму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 Поддерживаем в порядке всю документацию, проводим обучение людей, например, по охране труда, по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помощи. А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проводим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во всех кабинетах, в столовой и, конечно, смотрим за состоянием территорий, в чем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 и наши детки, которы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трудовой бригаде на летний период. К этой работе такж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влекаются родители. Они всегда отмечают, что школа выглядит как новое здание, хотя ей уже 5 лет. А это результат на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 подчеркнула Ольга Михаленкова.

В ходе приемк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будут проверены 32 школы и один объ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оценке готовност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завершатся 15 августа.

Добавим,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мфорта обучающих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ходятся на контрол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Вопросы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ремонтов и внедр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сист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школах - также приоритет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Работа отвечает задач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 «Все лучшее детя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와 지방 도시 간 상생 방안 모색

### 동포청, 한병도·이재강·채현일 의원과 공동주최로 정책대화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내 귀환 동포들과 지방 도시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동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7월 23일(수) 개최했다.

‘인구감소시대! 지방 도시와 귀환 동포, 상생 정책을 위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과 한병도, 이재강, 채현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 제천시, 익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와 경북연구원, 경희대, 이화여대 등 학계 관계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 10여 개의 고려인·중국동포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경고음”이라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07곳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유하고, “문화적·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86만 국내체류동포의 지방정착이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환영사에서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오랜 시간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우리민족의 일원인 귀환 동포와 그들의 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와 사회의 고립감 속에 경제인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귀환 동포의 진정한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하였다.

채현일 의원은 “인구감소-지방소멸-지역경제 쇠퇴의 악순환 극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귀환동포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과 광복 이후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국내 귀환 동포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회의 입법적, 예산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지방 도시에서의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사례 관련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고려인 이주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조건을 완화하고, 학교 밖 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선희 제천시 미래성장국장은 발표에서 “제천시가 시행 중인 고려인 이주 정착 지원사업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구조 취약성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다자녀 가족으로 도시의 활력도 더해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고려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검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들을 위한 거점형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도 발표에서 중국동포의 수도권 밀집 거주 현황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동포의 지방도시 이주를 위한 현실적 방안은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중국동포 당사자간 역할과 역할을 모아야 실현될 일”이라고 방안을 내놨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장, 박동찬 경계인의무소리연구소장,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주상현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동포들에 대한 포용적 시선, 제도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면서 토론을 펼쳤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1회 정책대화를 시작으로 8.29(금) 고려인 동포, 9~10월 중 중국동포 관련 정책대화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동포경제인 2천명 인천시에 모인다

###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본격 준비

### 돌입유정복 시장,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만나 추진 전략 논의

### 10월 29일 월드옥타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 치뤘

오는 10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Korea Business Expo Incheon’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종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비즈니스 도시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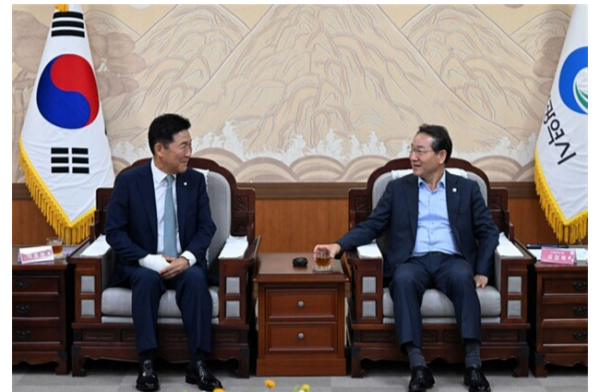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차기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개최 도시의 시장은 공동대회장 자격으로 대회 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 소속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 이후,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 및 해외 바이어 2,000여 명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경제인 행사로서 전국 500여 수출중소기업이 참여하는 ‘Korea Business Expo Incheon’이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소요비용은 시비와 국비, 민자 등 총 16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비즈니스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투자유치설명회 및 비즈니스미팅 ▲재외동포 기업 연계 글로벌 취업 설명회, ▲산업시찰 및 관광프로그램 ▲시립무용단 한국무용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특히, 관내 수출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Korea Business Expo Incheon’전시 및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결과 총86개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전시에 적합한 기업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박종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장의 예방을 받고 오는 10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9차 한인경제인대회' 및 'Korea Business EXPO Incheon'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을 선발해 사전 바이어 매칭 상담 및 전시부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월드옥타 본부사무국(02-571-1254)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출발점이자, 오늘날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글로벌 교류의 허브도시”라며 “이번 대회가 글로벌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차기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장 선거가 치뤄진다. 투표는 상임이사 등 대략 400여명이 참가한다.

**(재외동포신문)**

## 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수단도 분야도 더 확대된다

전 세계 재외국민이 국내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수단과 활용분야가 더 늘어났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지난해 11월28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협력해 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외동포청과 KISA는 30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엘가든 홀에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NICE평가정보와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추가된 은행 2곳에서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게 됐고, NICE평가정보가 발급하는 ‘재외국민 아이핀’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재외국민 아이핀 서비스는 8월부터, NH농협 및 IBK기업은행의 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는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시 예정

또한, 재외국민은 이제 추가된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정부·금융 서비스는 물론 디지털 플랫폼, 쇼핑, 통신, 의료, 교통, 교육 등 더 확대되고 다양한 국내 온라인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대표 서비스: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웹페이지 본인확인(로그인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등), 국내 통신사, 국내 의료기관(진료예약 등), 국내 대학(원격교육 등), 금융(보험 등), 국내 기업 서비스 본인확인(로그인 등)

각 기관은 이번 MOU에 △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 △KISA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 및 정부와 민간 간 상호연계 제공 △민간사업자는 재외국민 대상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규정해 재외국민 국내 디지털 서비스 편익 제고에 협력과 지원을 강화했다.

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는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재외국민의 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외국민이 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 '한강버스' 이용편의 높인다... 8월1일(금)부터 선착장 연계버스-따릉이 운영

서울에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며 ‘한강버스’ 운항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마을버스와 한강버스 선착장을 연계하고 따릉이 대여소 확대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다소 불편했던 ▲마곡 ▲망원 ▲압구정 ▲잠실, 4개 한강버스 선착장과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된 시내·마을버스 총 8개 노선을 연결해 8.1.(금)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개 노선 중 마곡·망원 선착장을 경유하는 3개 노선은 신설되며,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을 지나는 5개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특히 망원 선착장과 상암월드컵파크를 잇는 8775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되는 ‘맞춤버

스’로 투입된다. 마곡선착장에는 신설된 6611번이 투입돼 개화역을 오갈 예정이며, 망원선착장은 신설된 7716번과 마포16 노선 조정으로 합쳐서 교동을 오간다. 또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은 기존에 운행 중인 시 내버스 각각 2개 노선씩 조정해 연결한다.

시는 한강버스와 시내·마을버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강버스 운항 개시 전 버스 운행을 시작해 각 노선별 이용수요·운행 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한강버스 운행 시간 등 고려해 배차간격·첫막차 시간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마곡 ▲망원 ▲잠실 ▲압구정 ▲북성, 5개 선착장 인근 ‘도보 3분 이내’에

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조성해 해당 지역 주민의 근거리 이동 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민의 환승 편의를 돕는다.

▲여의도 선착장 ▲옥수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부지 조성 및 안 전시설 공사 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량 전면부와 정류소·차량 내부에 ‘한강버스 선착장 경유’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선착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에는 운영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착장 이동까지 불편이 없도록 이용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강버스 취항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중’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대표 교통수단과 연계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수도권 이동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30일권 67,000원(따릉이 미포함).70,000원(따릉이 포함)으로, 환승할인 등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고, 하반기에는 하남시 등 이용 범위가 확대돼 수도권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나들목·자전거도로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착장 근접한 지점에 버스 정류소, 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키로 했다”며 “한강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항 시작 전, 후 수요와 시민 반응 등을 살피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보도자료)**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ждали увлекатель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рограммы, где каждый смог прояви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закалить командный дух.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ла командообразующие игры,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а также встречи с опытными наставникам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Для тех, кто хотел только вступить в ряды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работала площад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проводились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о возможностях участия и дальнейш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вручением Кубка Фестива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и масштабной спевкой с гитарами у костра, что стало теплым и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завершением насыщенного события, укрепляющего чувство единства и дружбы среди молодых участников.

### 사할린 사반투이 우승자, 살아있는 솜양을 상으로 획득

7월 2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봄 농업 작업 마무리를 기념하는 전통적인 타타르와 바쉬키르 축제 사반투이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천 명 이상의 도시 주민들과 게스트들이 참여했다.

20회를 맞이한 이번 사반투이에는 약 100명의 참가자(예술단체, 민속 예술의 장인 및 다양한 민족 대표)가 모여 활동했다.

축제에는 테마 존이 운영되었다. 방문객들은 플로브, 차크 차크, 그리고 다른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었고, 수제 기념품을 구매할 수도 있었으며, 타타르와 바쉬키르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었다.

쿠레쉬(전통 레슬링), 계주 및 대회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특히 흥미로웠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사반투이의 주 상품인 살아있는 양을 획득했다.

또한 축제에서는 민속 춤, 노래 및 공예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가 개최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풍부한 문화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 주최자들은 사할린의 사반투이가 오랫동안 민족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축제는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여 우정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Побе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Сабантуя унес домой живого барана

26 ию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новь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азднования Сабантуя ---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атарского и башкир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посвященного окончанию весенних сельхозработ.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Юбилейный, 20-й по счету Сабантуй объединил около 100 участников: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мастеров 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фестиваля работа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зоны. Гости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плов, чак-чак и другие блюд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купить сувениры ручной работы, а также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культуре татар и башкиров.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и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куRESH (традиционная борьба), эстафеты и конкурсы. Победитель главного состязания унес домой живого барана - главный трофей Сабантуя.

Кроме того, на празднике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народным танцам, песням и ремеслам, где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г поучаствовать и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богатство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отмечают, что Сабантуй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давно стал символом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Он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яет традиции, но и укрепляет связи между жителями региона, создавая атмосферу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 사할린 청년들, 세계 청년 축제 대회 적극 지원

2025년 9월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축제 슬롯에 175개국에서 62,000명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사할린 지역도 88개의 참가 신청서를 보냈다고 행사 보도부에서 전했다.

"세계 청년 축제 대회는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제 청년 협력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라고 러시아 청년사업청 청장 그리고리 구로브가 말했다.

슬롯은 메인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회가 끝난 후 외국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기 위해 러시아의 10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 청년 축제 대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에 열리는 행사이며, 각국의 젊은 지도자들이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 Молодежь Сахалина активно подает заявки на Слет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Более 62 тысяч заявок из 175 стран мира поступило на Слет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в сентябре 2025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акже не осталась в стороне, отправив 88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ероприятия.

«Слет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 главное событие года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молодежи Григорий Гуров. - Он вызвал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молодых людей со всего мира».

Наряду с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лет предложит и детскую программу, в которой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подростк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лета иностранные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ят 1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страны.

Слет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проводи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идеями между молодыми лидерам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н (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